

통역 4.0: 원격통역의 규범과 실제

최 문 선
(이화여대)

1. 서론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러한 변화에 우리가 무서운 속도로 적응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통역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접촉이 불가능해지면서 재택근무가 증가했고, 대부분의 대면 회의가 취소되면서 통역 시장은 실로 패닉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은 기술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대화도, 회의도, 강의도 소위 ‘원격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거침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격회의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통역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통역 방식은 지난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급속도로 확대되었고 각종 공중보건 안전 조치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통역 방식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봉쇄 조치까지 내려진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는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 이외의 통역이 사실상 전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특수한 상황에 놓인 통역사들은 각자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 등 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통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실제로 900여 명 넘게 참석한 대규모 원격통역 관련 웨비나에서 이루어진 설문 조사 결과 참석자의 85%가 코로나로 인해 자택에서 원격통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Interpretip 2020).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역 환경의 기술적, 물리적 측면까지 통역사가 직접 관리해야 하므로 통역사의 인지 부하가 증가하고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유발된다(AIIC 2020d: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국어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역에 필요한 다양한 감각 정보의 양과 질이 축소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멀티태스킹의 부담을 안고서라도 통역을 수행해야 했다. 따라서 비대면 방식의 통역, 심지어 통역사 자신의 집에서 통역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짐으로써 새로운 통역 시장의 현실에 적응해 갔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원격통역이 요구되기 이전에도 영상회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통역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순차 통역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다. 경제성과 효율성 면에서 장점이 있는 원격통역이 전통적인 통역 방식의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원격통역 확대가 통역 실무와 통역 업계에 가져올 변화와 기대효과, 한계에 대한 이해 및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Ziegler&Gigliobianco 2018). 국내에서도 원격통역이라는 주제는 통역 연구의 한 축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이미경 2018; 임세인 2015). 그러나 통역 실무 현장에서는 통역사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채 잠재적인 가능성으로서만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작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원격통역은 통역 연구와 실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문제는 아직까지 원격통역 환경의 기술적, 물리적인 조건이 천차만별이며 공신력 있는 기준 없이 통역사들은 각자의 주관적 경험을 기초로 각개전투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원격으로 진행되는 통역이 통역사 대부분에게 전혀 없는 생소한 환경임은 분명하며, 모두에게 새롭다 보니 원격 통역에서 원활한 통역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명확한 청사진이

부재한 상황이다.

원격통역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에는 아직 축적된 경험치가 부족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에서도 원격통역 사례가 빠르게 축적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학회와 통역사 협회에서 원격통역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유하기도 하였으며(김순미 2020), 원격통역을 위한 지침도 신속히 마련되었다(KATI 2020). 협회와 통번역대학원이 주축이 되어 원격통역의 경험치가 상이한 여러 통역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각자의 경험을 나누면서 원격통역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자리가 마련되고, 기술 제공업체와의 적극적인 소통도 모색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원격통역 기반을 조기에 올바르게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내보다 원격회의가 양적, 질적으로 더 진전되어 있는 해외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원격통역 환경을 규정하는 기준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제 통역사들이 현장에서 통역하면서 경험하는 원격통역의 실제라는 양면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어지는 2장에서는 먼저 국제회의통역사협회(AIIC)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적인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원격통역의 지침과 표준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원격통역의 규범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화 중인 원격회의 기술의 개발 및 활용 현황, 그리고 원격통역 수행하는 통역사들의 고충을 살펴봄으로써 원격통역의 실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원격통역에 대한 규범과 실재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원격통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내에서도 원격통역에 대한 관행이 개선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원격통역의 개념과 정의

최근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원격통역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유럽, 북미, 호주 및 우리나라의 원격통역 변천사와 주요 연구 동향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고(임세인 2015), 원격통역의 개념, 범주, 정의에 대해서도 단기간 내에 상당한 논의가 진전되었다(김순미 2020; 상우연 2020; 이미경 2019). 그런데 원격통

역과 관련한 용어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됐으며 지칭하는 범위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과거의 기술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원격통역 형태가 진화해 왔고, 각 국가 혹은 시장마다 원격통역 경험치가 상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의 원격통역 기술 개발과 관련 연구 역사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훨씬 더 길지만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불과 몇 년 전의 연구에서 고찰했던 원격통역과 현재 시점의 원격통역의 실제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발생한다. 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되면서 변화하는 통역의 모습을 ‘통역 4.0(Interpreting 4.0)’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는 통역의 변화 단계를 따라 붙여진 명칭이라기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도래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과 효율을 지칭하는 ‘웹4.0’, ‘인더스트리4.0’ 등과 궤를 같이한다(Sinner&Paasch-Kaiser 2020: 3-4).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원격통역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원격통역은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통역을 표현하는 ‘통역 4.0’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원격통역이라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원격통역의 다양한 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기준과 분류가 필요하다. 원격통역의 근본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의를 ‘원거리 통역에 대한 AIIC의 입장표명서(AIIC Position on Distance Interpreting)’(AIIC 2018)에서 찾을 수 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이었던 2018년 AIIC에서 내놓은 본 문서에서는 원격통역을 ‘원거리통역(distance interpreting; DI)’이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으며, 1명 이상의 참가자가 원격지에 위치하는 조건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역을 의미한다(AIIC 2018: Annex). 통역사가 다른 참가자들과 같은 장소에 있는지, 즉 연사를 맨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원거리통역의 형식을 화상회의 통역(videoconference interpreting; VCI)과 원격통역(remote interpreting; RI)으로 구분하였다.¹⁾

1) 본 문서의 DI 구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순미(2020: 5-7)로 같음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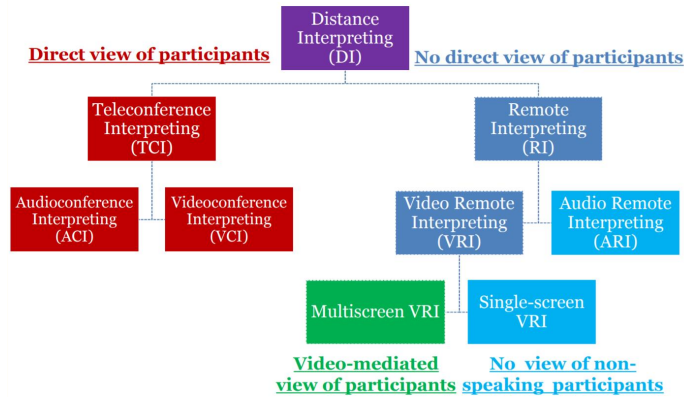


그림 1 ICT 기반 원격리통역(DI) 분류(Constable 2015:6)

이처럼 전통적인 면대면 상황에서의 통역이 아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통역사나 연사 등 회의 참여자가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통역의 가장 상위 개념이 원격리통역(DI)이다. 그리고 통역사가 연사 등 다른 회의 참가자와 같은 장소에 함께 동석(co-location)하는지에 따라 화상회의통역(VCI)와 원격통역(RI)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는 원격통역이라는 용어가 AIIC 분류상 최상위 개념인 ‘원격리통역(DI)’와 혼용되고 있다. 한국어 용어만 가지고는 DI와 RI의 위계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편리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다수의 통역사들이 원격통역을 지칭할 때 ‘온라인 통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국내의 관련 담화에서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고에서는 한국어로 ‘원격통역’이라고 하면 ‘비대면 방식을 수반하는 모든 형태의 통역’을 통칭하는 것으로 하고, 엄밀한 개념 구분과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림 1에서와 같이 DI, VRI, RI 등 영어 약어를 사용하거나 한글과 병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격리통역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VRI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TCI의 경우 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온 원격통역의 형태이긴 하나 주류 통역 방식은 아니었다. RI 중에서 오디오 기반의 ARI 역시 특정 국가에서 주로 활용되어 온 특수한 형태의 통역

으로 간주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민자가 많은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의료통역 등 지역사회통역으로 이루어져 온 OPI(over-the-phone interpreting)²⁾이다.

한편 VRI는 최근까지 주로 국제 사법 통역 세팅에서 순차 통역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FIT 2019: 1), 코로나로 인해 동시통역 영역으로까지 급팽창하면서 1년 남짓한 짧은 기간 내에 거의 모든 통역 방식을 대체하면서 주류 통역 모드로 자리 잡았다. 다시 말해 VRI의 경우에도 지역사회통역 맥락에서 주로 양자간 순차통역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동시통역 모드에 대한 수요까지 급증하였고(UNSW School of Humanities & Languages 2020) VRI는 현재 가장 널리 행해지는 통역 모드가 된 것이다. 원격통역에 대한 AIIC 입장표명서에서 정의하는 VRI는 ‘remote interpreting’, ‘video remote interpreting’, ‘remote simultaneous interpreting(RSI)’, ‘distance interpreting’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AIIC Switzerland 2020: 4). 즉 다양한 용어가 혼재하는 상황이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원격통역 담화는 VR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VRI는 회의 참석자를 별도의 화면으로 모두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다중 스크린 VRI와 단일 스크린 VRI로 구분된다. 그러나 필자가 느끼기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다중 스크린이나 단일 스크린은 통역사를 비롯한 통역 참여자의 선호도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이며 더 이상 기술적인 제약 사항의 하나로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과 같이 통역을 수행하는 통역사들의 물리적인 위치를 기준으로 VRI의 유형을 더 세부적으로 구분(AIIC 2020b: 8)하는 것이 통역 현장에서 원격통역 유형의 소통에 더욱 의미있게 적용될 수 있다.

- | |
|--|
| 모든 참석자들이 원격으로 접속함 (remote interpreting) [a] 모든 통역사들이 한 자리에 위치함 (remote hub interpreting) [b] 같은 부스 통역사들끼리 한 자리에 위치함 (booth co-location) [c] 같은 부스 통역사들도 모두 다른 장소에 위치함 (virtual booth, virtual team) |
|--|

2) <https://chicertification.org/ri-resources/> 참조. (2021년 1월 31일 접속)

이러한 구분은 통역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위의 분류에서는 원격통역, 즉 RI라고 해도 통역 파트너와 같은 위치에서 통역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데, 모든 통역사들이 한자리에 위치하는 [a]의 경우의 경우 연사들이 원격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오디오, 비디오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지만, 통역사들 간의 협업은 전통적 대면 통역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대면 통역과 상당히 유사한 환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RI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c]와 같이 파트너 통역사와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통역해야 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RI와 관련하여 최근 RSI(remote simultaneous interpreting)이라는 용어도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RI 중 동시통역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많은 경우 이러한 통역 모드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통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칭한다. 이는 작년 한 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큰 수요 급증을 보인 통역 형태로서 통역 업계에서도 통용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순차 통역과 비교하면 동시통역이 제기하는 기술적, 물리적 어려움이 크며 수행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훨씬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통역사는 연사의 말만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통역사의 통역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연사만 듣거나 통역사만 들을 수도 있어야 하며, 두 음성 소스 간의 음량 조절도 가능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장 통역의 기본 세팅인 데 반해 이것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이처럼 RSI를 제공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장애물이 매우 많으며, 원활한 동시통역을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AIIC의 원격통역 관련 문서도 거의 예외없이 RSI와 관련된 권고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최근 발표된 통역표준(ISO/DIS 24019) 역시 RSI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기술적 요건이다. ISO의 RSI 시스템 표준화 작업에 AIIC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AIIC의 문서에서 ISO 표준 조항을 참조하고 있어 양측의 원격통역 지침과 표준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핵심에 있는 원격통역의 형태가 바로 RSI인 것이다.

3. 원격통역에 대한 국제적 규범³⁾

본 장에서는 원격통역에 관한 국제적인 차원의 규범으로서 AIIC의 원격통역 지침과 원격통역 관련 ISO 표준의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전 세계의 국제회의의 통역사를 대표하는 협회인 AIIC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원격통역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펼쳐 왔고, 최근에 발표한 원격통역 지침 문서들은 우리나라 통역사 협회를 비롯하여 각국의 통역사 협회 지침의 기준이 되고 있다. ISO의 원격통역 표준 역시 지역별 표준, 국가 표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다.

3.1. AIIC의 원격통역 지침

AIIC는 수년 전부터 원격통역의 개념을 정리해 왔고, 특히 2020년 촉발된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지침과 권고안을 다수 발표하였다. AIIC 산하의 다양한 기구 중 원격통역 전담부(Taskforce on Distance Interpreting; TFDI)는 원격통역 관련 자문과 연구, 인식 제고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TFDI를 중심으로 AIIC에서는 지금까지 원격통역에 대해 총 10건의 문서를 발표하였다.⁴⁾ 발표시간 순으로 보면 크게 세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화상회의 기술의 등장에 따른 ‘인터넷’ 통역을 다룬 초기 문서들이다. 인터넷 기술 발달 초기였던 2000년대 초반 AIIC는 세 건의 문서를 발표하였다. AIIC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가 2000년 3월 24일 발표한 ‘화상회의에 대한 소고(Notes on Videoconferencing)’은 4쪽 분량의 화상회의 통역에 대한 지침이다(AIIC 2015). 같은 해 10월에 ‘인터넷 통역을 위한 체크리스트 초안(Draft Checklist for Interpretation over the Internet)’(AIIC 2015)과 ‘인터넷 통역(Interpretation on the Internet)’(Selhi 2015)도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 ‘인터넷 통역’(Selhi 2015)은 지침서라기보다는 당시 캐나다 통역사들의 인터넷 통역 경험을 바탕으로 이 새로운 통역 방식에 대한 우려사항을 제기한 문서이다. 이

3) 본 연구의 범위는 구어통역으로 한정하므로 수화통역에 대한 내용은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https://aiic.org/site/world/about/profession/guidelines> 참조. (2021년 1월 16일 접속)

상의 3건의 문서는 AIIC 홈페이지에 DI 관련 문서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발표 시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현재의 원격통역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둘째, 2018년 초 ~ 2019년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현재 다수의 통역사들이 경험하게 된 원격통역에 대한 개념 정립과 기본 원칙을 담은 문서가 발표되었다. 2018년 1월 TFDI와 AIIC의 연구위원회가 공동으로 원거리통역(DI)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후⁵⁾ 3월 7일에 3쪽 분량의 AIIC 입장표명서(AIIC 2018)⁶⁾이라는 3쪽 분량의 문서가 발표되었다. 본 문서는 AIIC가 향후 원거리통역(DI)에 대면 통역과 동등한 수준의 중요도를 부여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DI 유형 분류를 제시함으로써 개념을 체계화하였다. 이후 2018년 9월 AIIC 집행위원회에서는 TFDI에 보다 구체적인 DI 가이드라인 개발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2019년 1월 11일에 TFDI에서 작성한 ‘AIIC 원거리통역 가이드라인(AIIC Guidelines for Distance Interpreting(Version 1.0))’(AIIC 2020a)⁷⁾이 발표되어 3월 17일자로 최종 업데이트된 상태이다. 버전명이 붙은 것으로 보아 향후 기술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업데이트 계획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변경내용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RSI 수행 환경의 최소기준과 우수관행 권고사항을 담겨 있다. 본 지침의 주요 내용을 아래 박스에 제시하였다.

동시통역을 수행하는 **모든 통역사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어야 하며, 이 장소를 **DI 허브**라고 지칭한다. 또한 RSI 환경에서 통역사는 화면과 음성 피드를 통해 인풋을 수신하기 때문에 인지 부담이 증가하므로 회의 시간이 길어질 때 통역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역사를 추가 배치**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최소한 1명의 통역시스템 **테크니션**이 통역사들과 같은 장소에서 있으면서 장비의 올바른 작동을 모니터링하고 통역사를 지원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기반의 통역사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경우 통역사의 컴퓨터가 아닌 **독립된 별도의 기기**에서 작동하게 해야 하며 테크니션은 회의 종료시까지 해당 기기에 직접 접근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통역사들이 회의에 사용될 원격통역 플랫폼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술 브리핑(technical briefing)**이 조직되어야 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통역이 녹음되는 경우 사전 서명 동의를 득

해야 하며, 웹스트리밍이나 아카이브용 녹음의 경우 해당 통역이 영상과 음향 수신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의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면책조항(language disclaimer)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통역사가 테크니션, 행사 사회자, 동일 언어 통역 파트너 및 릴레이 부스의 통역사와 **상호소통(intercommunication)**할 수 있는 기능이 통역 콘솔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통역 수행에 미치는 방해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인지 부하 증가를 최소화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마이크 주파수 응답 요건, 음향 피드백과 음향 쇼크 보호, 음향 에코 캔슬링(AEC), 립싱크, 지연시간 등 **기술적인 요건이 ISO 관련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셋째,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다양한 형태의 원격통역 환경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지침들이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외출금지 및 봉쇄 조치 등으로 자택 통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전개되면서 통역사들의 행동요령을 매우 구체적으로 담은 지침서가 발표되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통역사 모범관행(AIIC Best Practices for Interpreters during the Covid-19 Crisis)’(AIIC 2020c)은 AIIC의 기술보전위원회와 TFDI가 공동으로 작성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통역 지침으로서 두 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문서이다.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초기에 통역사 및 연사의 대응요령을 평이한 언어로 설명한 문서로서 기술적인 요건을 담고 있지는 않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통역사 고용 기관 및 원격통역 허브를 위한 원격통역 권고사항(AIIC Covid-19 Distance Interpreting Recommendations for Institutions and DI Hubs)’(AIIC 2020)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연속통역사 및 프리랜서통역사를 고용하여 DI 허브 방식으로 통역을 제공해야 하는 기관 및 독립적인 DI 허브를 위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자택 통역 통역사 체크리스트(AIIC Interpreter

- 6) 통역사 추가 배치 대신 통역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된 AIIC의 지침인 ‘Code for the Use of New Technologies in Conference Interpretation’에서는 화상회의 통역 시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통역 시간이 최대 2시간, ‘Guidelines for Remote Conferencing’에서는 최대 3시간을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Irabiien 2010: 44).

5) <https://www.facebook.com/aic.interpreters/posts/after-the-publication-of-aic-positions-paper-on-distance-interpreting-in-march-2494855307253339/> 참조. (2021년 1월 31일 접속).

Checklist: Performing Interpreting Assignments from Home in extremis during the Covid-19 Pandemic)'(AIIC 2020d)는 동료 통역사를 비롯한 모든 회의 관계자와 떨어진 채 자택에서 혼자 통역해야 하는 경우를 위한 지침서이다. 통역사가 직접 확인해야 할 항목을 매우 상세하게 점검표의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원격통역에 대한 다양한 문서 중 본 문서가 가지는 의미는 현장통역이나 DI 허브 통역과는 달리 통역사가 혼자서 자택에서 통역하는 방식의 경우 회의 및 통역 환경의 기술적, 물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통역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한 것이다. 여타 원격통역 모드에서도 통역에 필요한 감각 정보의 품질과 양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원격통역의 기본적인 제약에 더하여 통역사가 스스로 통역 환경을 제어, 관리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로 인하여 통역사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심화되는 세팅임을 강조하였다. 본 문서의 점검항목 중에는 자택 원격통역에 필요한 ICT 및 AV 장비 요건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특히 주파수 응답⁷⁾ 범위가 125~15,000 Hz인 헤드셋(혹은 헤드폰과 마이크)를 갖추는 것이 권고되어 있다. 이 수치는 AIIC의 원격통역 문서와 ISO 표준 문서 전체를 걸쳐 반복되어 제시되고 있는 수치이며, 통역사가 음성 입력물을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연사 안내문(Tips for Speakers)’은 그림 2와 같이 픽토그램 형식으로 만들어진 안내서로서 총 15개 언어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한국어판은 없다. 연사들 역시 원격회의 참석 시 통역 이외의 것들로 이미 많은 신경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한눈에 요점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림 안내문 방식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7) 주파수 응답이란 진폭이 일정한 다양한 주파수의 입력 신호가 어떤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이를 어느 정도 재생해 내는지 측정된 것을 의미한다. (위키피디아(https://ko.wikipedia.org/wiki/%EC%A3%BC%ED%8C%8C%EC%88%98_%EC%9D%91%EB%8B%B5) 참조. 2020년 1월10일 접속).



그림 2 AIIC의 연사 유의사항 그림 안내문

지금까지 살펴본 일련의 AIIC 문서에서 별도로 주목할 부분은 ‘통역사 면책’에 관한 부분이다. AIIC가 통역사들의 권익 보호 단체인 만큼 각종 제약으로 예상치 못한 급작스런 문제 발생 소지에 대비하기 위해 통역 계약서에 충분한 면책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원격통역은 녹음, 녹화뿐만 아니라 웹스트리밍 등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통역 저작권이 침해되기 쉬운 환경이다. 따라서 국제 저작권법에 따라 녹음, 녹화 시에 반드시 통역사의 서면 동의를 사전에 득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기술 발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통역 재활용이 가능해지므로 계약서에 통역 서비스의 활용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AIIC 2020a). 또한 원격통역의 경우 음질, 화질 등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 등을 감안하여 통역이 웹스트리밍되거나 녹화 후 게시(archived recording)되는 경우 해당 영상물에 언어와 관련된 면책조항⁸⁾을 삽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봉쇄나 외출금지 등의 공중 보건상의 공식적인 조치로 인하여 재택 통역이 불가피할 경우 통역사는 다음의 경우에 면책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AIIC 2020b: 12).

- 통역 서비스의 일시적인 중단

8) ‘비디오와 오디오 입력물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통역은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것이며 이벤트의 실제 기록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제안하고 있다(AIIC 2020a: 5).

- 화면 깨짐, 화면 정지 혹은 영상 송출 중단
- 음향 및 소리의 부분적 혹은 전체적 손실
- 개인정보 또는 기밀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 불충분한 방음으로 인한 정보 유출
- 데이터 손실

이외에도 AIIC 지부 중 최다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AIIC 스위스에서 발간한 RSI 안내서인 ‘RSI 참조 안내서(Reference Guide to Remote Simultaneous Interpreting)’(AIIC Switzerland 2020)가 있다. 2020년 2월 29일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AIIC RSI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되었다. AIIC 통역사 체크리스트(AIIC 2020d)가 자택에서 수행하는 RSI의 기술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 본 문서는 더욱 실용적인 관점에서 통역사가 원격통역 의뢰를 받았을 때 고려해야 하는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자택통역과 허브 통역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특히 본 문서에 포함된 RSI 관련 참고문헌 목록은 향후 원격통역 연구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원격통역 표준: ISO/DIS 24019

국제표준화기구(ISO)에는 2012년 통역, 번역 및 관련 기술, 기술적 글쓰기, 콘텐츠 관리, 로컬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 국제화를 업무 범위로 하는 통번역 및 관련 기술 표준 위원회(ISO/TC37/SC5)가 설치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4개 회원국과 13개 옵서버 기관이 참여 중으로 독일표준협회(DIN)에 사무국을 두고 산하에 원거리통역(distance interpreting), 용어조정그룹, 번역, 통역, 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과 장비 등 총 5개의 작업반이 운영 중이다. 현재 통역과 관련된 ISO 표준 현황은 <표 1>과 같다. 이 중에서 동시통역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 요건을 규정한 표준은 ISO 2603(고정식 부스), 4043(이동식 부스), 20108(사운드와 이미지의 품질과 전송), 20109(동시통역 장비), 22259(국제회의 시스템), 24019(RSI 플랫폼) 등 총 여섯 건(<표 1>에서 회색으로 표시)이다.

<표 1> ISO 통역 표준 현황

| 발간년도 | 표준번호 | 제목 |
|---------|---------------|---|
| 2014 | 13611 | Guidelines for community interpreting |
| 2016 | 2603 | SI - Permanent booths - Requirements |
| | 4043 | SI - Mobile booths - Requirements |
| | 20109 | SI - Equipment- Requirements |
| 2017 | 20108 | SI - Quality and transmission of sound and image input - Requirements |
| 2018 | 18841 | Interpreting services - General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 |
| 2019 | 20228 | Interpreting services - Legal interpreting - Requirements |
| | 20539 | Translation, interpreting and related technology - Vocabulary |
| | 22259 | Conference systems - Equipment - Requirements |
| 2020 | 24019 | SI delivery platforms -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 |
| | 21998 | Healthcare interpreting -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 |
| ISO/DIS | 23155 (2018-) | Interpreting - Conference interpreting -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 |

회색으로 표시한 동시통역 관련 ISO 표준 중 특별히 통역 장비, 사운드 및 이미지 입력물과 관련된 표준은 ISO 2603, 4043, 20108, 20109, 22259 등 총 5건이며, 이 5개 표준을 참조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원격통역 세팅을 다루고 있는 표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0년에 ISO/PAS 24019가 발표되었다. 이 문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으로서 ‘공공활용표준’, ‘범용표준’, ‘잠정국제표준’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⁹⁾ 기술 발달 속도가 빨라 급속도로 산업 및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표준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공식적인 표준을 발표하기에 앞서 임시적으로 통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된다.¹⁰⁾ 정식 표준은 아닌 상태이며 기술 사양 정도로 볼 수 있다.

9) 영국표준협회(BSI) 홈페이지 <http://bsiblog.co.kr/archives/6023?pnum=0&viewtype=board> 참조 (2021년 1월 18일 접속)

10) 표준개발 전 발간되는 중간단계의 문서로 표준으로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않는다. 관련 위원회가 현 국제표준과 상충되는 바가 있는지 확인 후 발간되며, 발

본 표준은 구체적으로 원역통역 상황에서 동시통역 제공을 위한 동시통역 제공 플랫폼(Simultaneous Interpreting Delivery Platform; SIDP)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정식 표준으로 완성되어 2021년 1월 초에 ISO/DIS 24019로 발표되었다.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s)는 일종의 초안으로서 이 문서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업데이트된 정식 표준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표준의 서론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원역통역 제공 플랫폼 표준이 개발된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한 원역통역 수요의 급속한 증가가 있었다. SIDP의 사용과 관련된 요건과 권고사항을 담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의 기업 및 고객들, 기술업체들이 이 표준을 기준으로 RSI 플랫폼을 구축하며 이용하고 있다.

ISO/DIS 24019는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 |
|--------------------------------|
| 1장 범위 |
| 2장 규범적 참조 |
| 3장 용어와 정의 |
| 4장 목적과 특징 |
| 5장 통역사, 연사, 수화자, 참석자에 대한 고지 의무 |
| 6장 포괄적 표준 준수 |
| 7장 음향 및 이미지 요구사항 |
| 8장 전송 |
| 9장 통역사 인터페이스 |
| 10장 커뮤니케이션 |
| 11장 마이크 |
| 12장 통역사 헤드폰 혹은 헤드셋 |
| 13장 수화통역을 위한 요건 |
| 14장 통역사, 연사, 수화자의 작업환경 |
| 15장 기록과 웹캐스팅 |
| 16장 비밀보장과 데이터 보호 |
| 17장 기술지원인력 활용 가능성 |
| 부록 통역 방해 요소 |
| 참고문헌 |

간 후 첫 3년간 유효하다. 발간된 지 6년 이내에 국제표준으로 제정 또는 폐지할지 결정한다.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371>))
 참조. 2021년 1월 18일 접속)

표준의 기술적 사항을 본 고에서 상세히 다루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RSI 플랫폼을 이용하여 동시통역을 수행하고 교육할 주체들이라면 표준에서 다루는 측면, 주제와 핵심 사항은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3장의 3.3.1항에 따르면 SIDP는 ‘발화자(혹은 수화자)로부터 원역지의 통역사를 거쳐 또 다른 원역지의 청중에게 동시통역을 통해 정보가 전송되는 동안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 처리를 관리하는 가상 환경’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특히 컴퓨터나 휴대용 IT 디바이스에서 구동되면서 화면으로 제어되는 통역사 인터페이스 부분을 특별히 물리적인 하드웨어로서의 콘솔과 구분하여 ‘소프트 콘솔(soft console)’이라 칭한다(3.3.5항).

시스템의 음향 및 이미지 요구사항을 다루는 7장에서 특히 음질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주파수 응답이다. 시스템에 사용되는 마이크와 헤드폰이 125Hz~15,000Hz 사이의 주파수를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1.3항). 두 번째는 음성 명료도(speech intelligibility)이다. 음성 명료도를 측정하는 기준인 음성전달지수(Speech Transmission Index; STI)는 최소 0.64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1.8항). STI 지수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이 STI=0,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을 STI=1로 하며 그 사이의 수치는 다음과 같은 수준의 음성 명료도를 의미한다(Ghimire 20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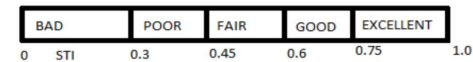


그림 3 음성전달지수(STI) 척도¹¹⁾

STI=0.64 이상이라고 하면 원어민이 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전체 문장의 95~96%, 전체 단어의 87~94%, 전체 어절의 67~90%를 완벽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음질을 의미한다¹²⁾.

통역사 및 참여자의 청력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SIDP가 음향충격(acoustic shock)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구비할 것 역시 요구하고 있다(7.2항). 음향충격

11) Ghimire(2012: 18)에서 발췌.

12) https://en.wikipedia.org/wiki/Speech_transmission_index 참조. (2021년 1월 30일 접속).

이란 1분 이상 80dB_{SPL} 이상의 음압이 유지될 경우 청력손상 경고를 내보내야 하며, 94dB_{SPL} 이상의 큰 소리가 100ms 이상 지속될 때 소리를 차단해 주어야 한다.

원격통역에서 이슈가 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파트너 통역사와의 교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면 현장 통역에서와 달리 통역사들이 바로 곁에 붙어 통역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트너 통역사에게 교대 요청을 보내면 이를 받은 파트너 통역사가 요청 승인을 하고, 이때 송신 채널에 대한 제어가 상대방 통역사에게 넘겨지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9.4.6항).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통역을 넘겨받는 통역사가 교대 시점을 결정하는 기능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통역하고 있던 통역사가 통역하던 메시지 혹은 문장을 마무리하고 나서 마이크가 넘겨져야 하는데 상대방 통역사가 요청 승인을 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제어권이 넘어가도록 규정해 놓은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통역 교대를 포함하여 통역사는 복수의 회의 참여자들과 상호소통을 할 필요가 있으며, 통역사 인터페이스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어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규정되어 있다(10.2항). 같은 채널을 사용하는 파트너 통역사를 비롯하여 릴레이 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언어 부스의 통역사들과의 소통도 필요하며 회의 진행자나 주최측과의 소통 방법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상호소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결국 통역사 인터페이스 상의 화면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이로 인해 인지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특히 동일 언어 부스 통역사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영상 채널을 둘 것, 그리고 파트너 통역사가 통역할 때 연사음과 통역음을 동시에 청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원격통역과 관련된 ISO 표준은 현재로서는 동시통역에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독일표준협회(DIN)에서 원격순차통역의 요건과 권고사항을 담은 국내표준 초안(DIN 857813)을 발표하였고 향후 원격통역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원격순차통역 관련한 국제적인 표준화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3) 독일표준협회(DIN) 홈페이지 <https://www.din.de/en/getting-involved/standards-committees/nat/drafts/wdc-beuth:din21:332230833> 참조. (2021년 1월 28일 접속)

4. 원격통역의 실제

3장에서는 원격통역의 국제적인 표준과 지침을 고찰함으로써 원격통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이상적인 기준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해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격통역에 사용되는 다양한 RSI 플랫폼을 개괄하고, 원격통역이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장소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원격통역을 수행하는 통역사들이 겪는 주요 고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에서 원격통역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4.1. RSI 플랫폼

RSI 플랫폼은 ISO 24019에서 동시통역전달플랫폼(simultaneous interpreting delivery platform; SIDP)으로 지칭하는 원격동시통역 시스템이다. 엄밀히 말해 2020년 한 해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통역사들이 원격통역을 수행할 때 사용했던 Zoom이나 WebEx, Microsoft Teams, Google Meet, Skype 등은 일종의 원격 화상회의 톨로서, 통역사들이 RSI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많은 기능과 특징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SIDP로 보기는 어렵고, 원격협업툴 혹은 화상회의 플랫폼, 화상회의 솔루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RSI 플랫폼이 우후죽순 격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관련 업체의 수도 상당수에 이른다. Interprefy, Kudo와 같이 세계 시장에서 지명도를 높여가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브랜드들 이외에도 유럽이나 캐나다, 호주 등 특정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브랜드들도 있다. 일례로 캐나다에서는 Webswtcher, 유럽의 경우 VoiceBoxer와 Interactio, 호주에서는 Congress Rental Network의 시스템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UNSW School of Humanities & Languages 2020). 경우에 따라 ‘re-branding’이나 ‘white-labelling’이라는 관행을 통해 다른 브랜드의 RSI 플랫폼을 소위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장비업체에서 판매, 서비스 하기도 하므로 핵심 RSI 플랫폼 기술은 브랜드 수만큼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다(UNSW School of Humanities & Languages 2020). 현재로서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로 봐야 하므로 몇 년간의 과도기적 혼란을 지나고 RSI 플랫폼 사용 경험이 축적되면 시장의 구도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출시된 RSI 플랫폼들이 동시통역 장비 표준(ISO 20109)에 부합하기 위해서 가장 개선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은 오디오와 비디오이다. 이와 관련하여 AIIC 기술보건위원회(Technical and Health Committee; THC)는 2019년 클라우드 기반 RSI 플랫폼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실제 성능 테스트는 THC 조정관인 Klaus Ziegler가 몸담은 AV 전문기업인 Neumann&Müller사(社)에서 수행하였다. 당시 출시되어 있는 6개 RSI 플랫폼(Catalava, Interactio, Interprefy, KUDO, Olyusei, VoiceBoxer)을 대상으로 ISO 20108, 20109의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6가지 항목(주파수 응답, 지연시간, 음성 명료도, 전고조파 왜율, 청력 보호, 인풋 아웃풋 영상 품질)에 대해 성능을 평가하였다¹⁴⁾. 해당 측정기준에 대한 ISO 표준(ISO 20108/20109)에서 권고하고 있는 품질은 아래와 같다.

〈표 2〉 ISO표준에서 정한 동시통역 장비의 음성 및 영상 품질 기준¹⁵⁾(AIIC 2019:3)

| 측정 항목 | ISO 표준에서 정의된 값 |
|------------------------------------|-----------------------|
| 주파수 응답(frequency response) | 125 Hz ~ 15,000 Hz |
| 지연시간(latency) | 최대 500ms |
| 음성 명료도(speech intelligibility) | STI>0.64 |
| 전고조파 왜율(total harmonic distortion) | <1% |
| 청력 보호(hearing protection) | <94 dBAspl, >100ms 이상 |
| 영상 품질(video quality) | 가시적인 화질저하 요소 없음 |

성능 측정 결과 모든 플랫폼이 주파수 응답과 청력 보호 면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IIC Technical and Health Committee(2019: 9). 지연시간, 음성 명료도, 전고조파 왜율에 있어서도 플랫폼간 편차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시험으로 2020년 10월에 이루어진 AIIC의 2차 성능 테스트에서는 총 8개 플랫폼(Ablioconference, Interactio, Interprefy, Kudo, Quaqua,

14) 해당 성능 테스트 이후 일부 플랫폼의 기능 향상 및 신규 플랫폼 출시, RSI 플랫폼만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ISO 표준(ISO/PAS 24019: 2020) 제정 등으로 재평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AIIC 2020b: 6).

15) 출처: AIIC Technical and Health Committee(2019: 3)

VoiceBoxer, Webswitcher, Zoom)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졌다. 결과 보고서에서도 명시되었다시피 Zoom은 ISO 24019에서 요구하는 SIDP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RSI 플랫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격통역 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성능 테스트에 포함되었다(AIIC Technical and Health Committee(2020: 1).

〈표 3〉 AIIC의 RSI 플랫폼 2차 성능 테스트 결과¹⁶⁾

| 플랫폼 | 주파수 응답 | 지연 시간 | 음성 명료도 | 전고조파 왜율 | 청력 보호 |
|-----------------|------------|-------|------------|---------|-------|
| Ablioconference | 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미감지 |
| Interactio | 부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미감지 |
| Interprefy | 부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미감지 |
| Kudo | 부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미감지 |
| Quaqua | 부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미감지 |
| VoiceBoxer | 부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미감지 |
| Webswitcher | 부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미감지 |
| Zoom (고급 모드) | 부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미감지 |
| Zoom (일반 모드)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미감지 |

〈표 3〉의 성능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1개 플랫폼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이 주파수 응답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ISO 표준에서 요구되는 125Hz~15,000Hz(+/- 3dB)이라는 품질 기준에 미달하며, 청력보호 장치 역시 모든 플랫폼이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파수 응답과 청력 보호 측면에서 취약성이 드러난 1차 성능 테스트(2019)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연시간, 음성 명료도, 전고조파 왜율에 있어서는 Zoom(일반 모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ISO 20108, ISO 20109, ISO/PAS 24019에 규정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1차 성능 테스트 결과보다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AIIC의 RSI 플랫폼 성능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16) 출처: AIIC Technical and Health Committee (2020: 2)

이들 RSI 플랫폼들은 음질 문제, 청력 손상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서, 향후 발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통역에 필요한 오디오/비디오 입출력 관련 ISO 표준(20108, 20109, 24019)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플랫폼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력 보호 장치가 제공되는 플랫폼이 전무하여 통역사가 자체적인 청력 보호 장비를 갖추는 등 별도의 자체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ISO 표준에 상당히 부합하는 RSI 플랫폼들이 다수 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RSI의 현장에서 절대 강자는 Zoom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RSI 웨비나 참석자 대상으로 원격동시통역에 사용해 본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Zoom이 70%로 가장 많았고, 구글 Meet, 마이크로소프트 Teams 등 기타 화상회의 솔루션이 34%, WebEx가 19%를 차지하였다. 설문 대상에는 Interactio, VoiceBoxer, Interprefy, Kudo 같은 주요 RSI 플랫폼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플랫폼 사용 경험이 있는 통역사 비중(%)은 한 자리수에 그쳤다(Interpretips 2020). 이는 이미 기존에 화상회의를 위해 Zoom과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이 널리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이 통역 중심의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는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RSI 플랫폼들이 가격적인 면에서 Zoom과 큰 차이가 발생하여 고객이나 회의 주최기관에서 RSI 플랫폼 활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1일 사용료가 RSI 플랫폼의 경우 약 250~2225달러에 이르는 반면¹⁷⁾ Zoom의 경우 월 사용료도 이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4.2. 원격통역의 장소: 허브(Hub)와 자택

RSI를 수행하는 통역사가 위치하는 장소는 크게 통역 허브(Hub)와 자택으로 나눌 수 있다. 허브는 정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대략 동시통역 송출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며 테크니션이 상주하여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며, 그 외 휴게공간 등 통역사들을 위한 추가적

17) <https://translationrating.ru/6-remote-simultaneous-interpreting-rsi-platforms-and-zoom/> 참조. (2021년 1월 10일 접속)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RSI 허브, RSI 스튜디오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너무나 다양한 세팅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ISO 규격의 이동식 부스 혹은 고정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방이나 공간을 의미한다. 참석자들이 원격으로 접속하는 경우 보통의 회의실도 허브로 기능할 수 있다(AIIC Switzerland 2020: 4-5). 통역사 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 않아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 같은 부스 내의 팀워크를 가능하게 통역사들이 같은 장소에 위치하여 통역할 수 있다는 점, 안정적인 기술 지원, 릴레이의 제약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허브 통역과 자택 통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허브 통역의 경우 현장 통역과 완전히 동일한 기술적 조건이 제공되는 반면 자택 통역은 통역사가 ‘자동 항법 장치 없이 수많은 버튼을 눌러가며 혼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격’¹⁸⁾이라고 할 만큼 불안하고 인지 부담이 큰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격통역 표준과 지침에서도 봉쇄나 외출금지 조치로 인해 자택 통역 외의 옵션이 없는 경우 외에는 허브 통역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 미주, 호주 등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RSI를 위한 허브 인프라가 생겨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현재 RSI 허브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이다¹⁹⁾. 그러나 임대료 부담 등의 이유로 상설 허브가 구축되기 보다는 대부분 행사별로 임시 허브가 구축되고 있다. 대부분의 통역 허브는 전통적인 통역 콘솔에 클라우드 기반의 RSI 플랫폼을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AIIC Switzerland 2021).

상업적인 통역 허브 구축이 활발한 사례로서 독일의 Neumann&Müller(N&M)²⁰⁾와 호주의 언어서비스업체 2M Language Services의 Congress Rental Network(CRN) 허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N&M은 RSI를 ‘Interpreting 4.0’으로 지칭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통역사가 RSI 허브에서

18) <https://www.ata-chronicle.online/featured/remote-simultaneous-interpreting-hubs-or-platforms-whats-the-best-option/> 참조. (2021년 1월 10일 접속)

19) <https://www.linkedin.com/pulse/working-together-rsi-market-best-practices-naomi-bowman/> 참조. (2021년 1월 20일 접속)

20) <https://www.neumannmueller.com/en/> 참조. (2021년 1월 20일 접속)

통역하여 현장에 갈 필요가 없는 원격통역을 소개하고 있다.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 서버를 이용하는 폐쇄형 시스템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개방형 플랫폼, 그리고 고객의 원격회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솔루션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독일 내 노이하우젠(Neuhausen)에 RSI 허브 1호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이나 고객사 내에 혹은 행사장에 임시 허브 설치도 가능하다²¹⁾. 노이하우젠 허브는 2019년 7월 개장하였으며 2개의 워크스테이션을 갖춘 통역 부스 총 4개를 갖추고 있는 독일 최초의 상설 RSI 허브이다. 해당 업체 측에서는 회의 주최측이나 고객의 이점뿐만 아니라 통역사들에게도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넓고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실내 공간과 DIN 및 ISO 표준에 따른 최신 기술 덕분에 전문 회의 통역사에게 최상의 작업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회의장의 참석자들이 있을 경우 기존의 IR/UHF식 통역 리시버로 평소와 똑같이 통역을 청취할 수 있고, 클라우드 연결을 통해 자신의 기기로 직접 청취할 수도 있다. 보도자료²²⁾에 실린 해당 허브의 모습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상설형 RSI 허브의 모습(N&M사(社) 노이하우젠 허브의 사례)

21) <https://www.neumannmueller.com/ae/we/press/nm-opens-first-permanent-remote-hub-for-simultaneous-interpreting> 참조. (2021년 1월 20일 접속)

22) <https://uepo.de/2019/07/30/neumann-mueller-eroeffnet-ersten-permanenten-remote-hub-fuers-ferndolmetschen/> 참조. (2021년 1월 28일 접속)

N&M에서 RSI 사용 고객에 홍보하는 가장 큰 장점은 허브를 활용하는 방법이 기존의 부스 설치보다 간단하다는 점이다. 현장 부스 설치가 불필요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인력과 활동을 모두 절약할 수 있다는 점, 통역사들을 원격으로 연결하면 행사의 국제적인 도달 범위를 늘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복수의 행사나 분과 세션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으며 통역 이용자는 통역 리시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비(BYOD), 혹은 원격회의 플랫폼으로 통역을 들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호주의 2M Language Services²³⁾는 호주 내 브리스번에 통역 허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멜버른에도 통역 허브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 업체는 Congress Rental Network(CRN)의 RSI 플랫폼(CRN-RSI)을 채택하고 있다. CRN 소개자료²⁴⁾에 따르면 RSI가 추천되는 경우는 행사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스트리밍하고자 할 때, 대형 회의에서 소수의 참석자만을 대상으로 통역을 제공할 때 매우 유용하며, CRN-RSI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안전 규정을 준수하면서 통역을 비용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비용 압박이 큰 소규모 행사에도 적합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의 이점에 더하여 통역사 입장에서도 채택 통역과는 달리 일과 사생활을 분리할 수 있고 동료 통역사들이나 테크니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채택 통역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UNSW School of Humanities & Languages 2020).

물리적으로 행사장이나 연사와 떨어져 있지만 방음이 되는 공간, 익숙한 통역 콘솔, 기술지원이나 파트너 통역사와의 같은 장소에 위치 등 전통적인 통역 환경이 그대로 구현되기 때문에 ISO 표준이 준수되는 통역 허브가 인체공학적이고 쾌적한 장소로 설계된다면 통역사들에게는 현장 부스보다도 더 편안한 통역환경이 제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든 상황을 스크린을 통해 간접적으로밖에 볼 수 없고 실제 회의장에서처럼 연사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요청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즉석에서 회람되는 문서를 바로 공급받는 등 현장에 위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부수적인 혜택이 없기에 통역사 입장에서의 제약은 분명 상존한다.

23) <https://www.2m.com.au/> 참조. (2021년 1월 10일 접속)

24) <https://congressrentalnetwork.com/> 참조. (2021년 1월 10일 접속)

4.3. 원격통역으로 인한 통역사 고충

원격통역을 수행하는 통역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고충은 인지 부하의 증가이다. 기본적으로 통역사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task)의 가짓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인지 부하를 급증시키는 요인이다.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여기를 클릭도 해야 하고 여러 개의 스크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팅도 해야 하며 이러한 여건이 전반적으로 통역사의 뇌를 혹사시킨다(Interpretips 2020). 일례로 평소 연사 발언문을 종이 카피 형태로 즉석에서 제공받던 UN 통역사들의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로 자택에서 원격통역을 하게 되면서 컴퓨터 화면 상에서 연사 명단을 확인하고 발언할 연사를 찾아 발언문을 온라인으로 열어 보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더해지는 등 상당한 수준의 멀티태스킹이 추가되었다는 고충을 토로하였다²⁵⁾. 즉 문서가 전자적으로 공유될 때 화면을 여러 개 띄워야 하는 문제로 인해 통역 과제의 복잡도가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Interpretips 2020). 또한 통역 순서 교대 시 실제 부스 안에서 통역 시 파트너와 시선을 주고 받거나 제스처를 이용하여 마이크를 넘기는 것이 가능하지만, 원격통역 시에는 이 모든 것을 추가적인 시스템 조작 절차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인지 부하를 추가하는 요인이 된다.

통역 뿐만 아니라 교육, 동료 및 가족 간의 소통에서까지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화상회의가 이용됨에 따라 스크린을 통한 상호작용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소위 ‘Zoom Gloom’이라고 불리는 화상회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격통역은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봉쇄나 외출금지로 인해 통역 파트너와 같은 장소에서 통역하기 불가능한 경우 효과적인 동시통역에 필요한 팀워크를 발휘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지며 한 팀으로서 통역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통역사가 놓친 숫자, 생각 안 나는 전문용어 등을 급하게 종이 위에 써주거나 입으로 소리 없이 말해주는 등의 긴요한 협업이 불가능해진다(Interpretips 2020). 연사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파트너와 소통하기 위해 별도의 문자나 영상 채

팅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추가된다. 콘스타블(Constable 2015)에 따르면 원격통역이 지니는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통역사들에게 전달되는 감각 정보 중 일부가 차단된다는 점이다.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입력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입력정보가 많을수록 의미 형성이 수월해진다. 원격통역과 같이 감각정보의 종류와 양이 제한될 때 의미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며 반면 의미 오류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역사들은 최소한의 통역 품질을 제공해야 하므로 원격통역 수행 시 훨씬 많은 인지적 노력이 들어간다. 이러한 추가적인 인지적 노력은 통역사를 더 빨리 지치게 하고 결국 원격통역은 현장 통역에 비해 통역 품질이 더 빠른 속도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역사에게 들어오는 감각정보가 제한되는 원격통역의 경우 현장 통역의 통역 시간, 통역사 규모가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원격통역 환경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

청력보호 또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통역사를 위한 청력 보호와 관련해서는 ISO 20109의 4.5항²⁶⁾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균 음압 레벨이 80 dBA_{SPL}로 1분 이상 지속될 때 청력손상 경고가 나와야 하며, 100ms 넘게 최대 출력이 94 dBA_{SPL}를 초과하지 않도록 소리를 차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역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ISO 20109 인증을 받은 통역 콘솔을 사용하거나 디지털 믹싱 콘솔 혹은 오디오 믹서를 적절하게 세팅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기술 전문가인 장비업체 담당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이며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통역사들이 직접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최소한 헤드폰에 청력보호장치가 내장된 헤드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컴퓨터와 헤드폰 사이에 ‘PreservEar’²⁷⁾와 같은 별도의 청력보호 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 역시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통역사가 직접 보정하고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JTP - Jednota tlumočnicků a překladatelů 2020).

청력보호와 관련하여 AIIC 캐나다 지부와 캐나다 의회 통번역국(Translation

25) <https://www.un.org/en/coronavirus/portraits-un-interpreters-adapt-new-work-modes-during-covid-19> 참조. (2021년 1월 20일 접속).

26) <https://standards.iteh.ai/catalog/standards/cen/0e16cf34-b1cc-45c2-88a1-22910d12ba61/en-iso-20109-2016> 참조. (2021년 1월 20일 접속)

27) <https://preservear.com/> 참조. (2021년 1월 20일 접속).

Bureau)에서는 2019년 7월 음향충격 방지를 위한 청력 보호 장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응답자 488명 중 47.1%가 통역 중 음향 충격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AIIC Switzerland 2021). 특히 코로나로 인해 전면 원격통역화 되면서 캐나다 의회 통역사가 2020년 4월에만 경험한 청력 손상 사고가 2019년 전체에 걸쳐 발생한 건수보다 많았다²⁸⁾. 이는 현재 증가일로의 원격통역 환경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욱 많은 통역사가 음향충격에 노출된 채 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존의 대면 통역 환경 대비 원격통역에서의 통역사 청력 보호는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통역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통역사들은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캐나다의 경우 의회 통역에서 VRI는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의회 내의 모든 위원회가 원격으로 소집되면서 본격 도입되었고 결과적으로 통역사들이 두통, 귀 통증, 이명, 과도한 피로감, 과민, 집중력 저하, 불면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통역시간이 하루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되었고 대부분 하루에 2~3시간만 통역하는 관행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De Rioja 2020). 결국 과거 2000년대 초반 AIIC 지침에서 권고했던 원격통역 시간 제한(Iraben 2010: 44)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 주요한 이유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음질이다. 배경소음, 에코, 디스토션(distortion), 인터넷 연결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소리 끊김 등 다양한 음질 문제로 인해 통역사들의 청력이 혹사당하고 과도한 피로감이 발생하는 것이다. 통역사가 사용하는 장비 자체의 음질 문제에 더하여 연사가 사용하는 장비가 무엇이냐에 따라 통역사들에게 도달하는 음질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어버드(earbud)나 이어폰 선에 달린 인라인 마이크의 경우 여전히 입에서 멀고 옷에 쓸려서 잡음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장착된 헤드셋이 가장 이상적이나 여전히 많은 연사들이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De Rioja 2020).

이에 더하여 인터넷 연결 불안정으로 인한 음성 끊김 현상이 통역의 내용

28) <https://www.thestar.com/news/canada/2020/05/08/virtual-parliamentary-proceedings-cau-se-spike-in-injuries-for-interpreters.html> 참조. (2021년 1월 20일 접속)

적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어의 예를 들면 연사가 ‘can’t’라고 발화했는데 ‘t’ 사운드 소실로 ‘can’이라고 들리거나 ‘asymptomatic(무증상)’이라는 단어의 앞 음절인 ‘a’가 살짝 누락되어 ‘symptomatic(유증상)’이라고 수신될 경우(De Rioja 2020) 원문의 의미를 반대로 통역하게 되는 등 통역 결과물의 품질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끊김없는 음성 수신을 보장하기 위해 와이파이 등 무선연결이 아닌 유선 인터넷 연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 사용에 익숙한 일반 참가자들은 굳이 유선 연결을 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연결이 끊겼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스트리밍이나 녹음에 대한 저작권 문제, 데이터 및 기밀정보 보호의 문제 역시 통역사가 계약 서상에 미리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클라이언트와 사전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5. 결론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원격통역 관련 세미나 및 웨비나의 내용을 볼 때 향후 현장 대면통역과 원격통역이 공존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서 등장하게 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업무 환경 및 새로운 고충 요인 등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없이 미래의 통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 기술적 사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통역사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원격통역의 급속도 확대에 따른 통역 현장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원격통역은 코로나로 인한 극단적 보건 위기 환경에서 사실상 유일한 통역 방법이었고 코로나 시기 이후에도 상당 부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격통역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원격통역의 요건을 정의하는 표준화 작업을 비롯하여 원격통역의 현황 파악, 원격통역의 실체가 현장 통역사들의 통역 수행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

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통역 시장의 특수성, 통역언어별로 경험하는 원격통역 환경의 차이에 대한 기술적 연구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회의장이 아닌 개인적, 개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통역의 특성상 통역사들이 파편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통역사의 업무조건 협상력이나 전반적인 권익 보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의 연구도 요구된다.

원격통역의 실제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교육 측면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RSI 플랫폼의 사용법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RSI를 수행할 때 인지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역하는 방법에 익숙해지고 더 효과적으로 통역하기 위한 통역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단순히 플랫폼별 사용법을 익히는 한 두 시간짜리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격통역에서 요구되는 멀티태스킹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등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통적인 통역 환경에서 통역하는 것과 같은 통역 수행이 가능하도록 RSI 환경의 통역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원격통역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활용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업계 내에 우세하다. 대형 행사의 경우 현장 대면 통역 세팅으로 회귀하더라도 특히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은 가상회의에 대한 원격통역은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역사들은 새로운 기술을 자주 접하면서 이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기계번역, 자동통역, RSI 플랫폼 등의 기술 자체가 아닌,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통역사가 기존의 통역사들을 대체할 것이다. ‘인더스트리 4.0’이라 불리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통역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원격통역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형태의 통역, 즉 ‘통역 4.0’이 될 것이다. ‘통역 4.0’ 시대를 사는 통역사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과거 뉘른베르그 전범 재판 시 새롭게 도입된 동시통역 기술로 인해 통역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변화한 것만큼 새로운 스킬셋이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기술 변화의 속도를 감안할 때 이러한 변화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격통역으로 대변되는 향후의 통역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학습, 연구와 대응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순미 (2020) 「언택트 시대, 원격통역이 주는 도전과 기회 - 한국통번역사협회(KATI)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4(4): 1-33.
- 상우연 (2020) 한일 원격통역 현황과 통역사 수요에 기반한 교육적 제언, 『번역학연구』 21(5): 129-159.
- 이미경 (2019) 「원격통역 활성화 요건 및 통역교육의 함의」, 『통번역교육연구』 17(2): 63-84.
- 임세인 (2015) 원격통역의 개념과 연구 동향 고찰, 『통역과 번역』 17(3): 163-189.
- AIIC (2015a) Notes on Videoconferencing. Available at <https://aiic.org/document/4422/Notes%20on%20videoconferencing%20-%20ENG.pdf>
- AIIC (2015b) Draft Checklist for Interpretation over the Internet. Available at <https://aiic.org/document/4420/Draft%20checklist%20for%20interpretation%20over%20the%20Internet%20-%20ENG.pdf>
- AIIC (2018) AIIC Position on Distance Interpreting. Available at <https://aiic.org/document/4837/18E-AIIC%20Position%20on%20Distance%20Interpreting.pdf>
- AIIC (2020a) AIIC Guidelines for Distance Interpreting (Version 1.0). Available at [https://aiic.org/document/4418/AIIC%20Guidelines%20for%20Distance%20Interpreting%20\(Version%201.0\)%20-%20ENG.pdf](https://aiic.org/document/4418/AIIC%20Guidelines%20for%20Distance%20Interpreting%20(Version%201.0)%20-%20ENG.pdf)
- AIIC (2020b) AIIC Covid-19 Distance Interpreting Recommendations for Institutions and DI Hubs. Available at <https://aiic.org/site/world/about/inside/basic/covid>
- AIIC (2020c) AIIC Best Practices for Interpreters during the Covid-19 Crisis. Available at <https://aiic.org/document/4840/AIIC%20best%20practices%20for%20interpreters%20during%20the%20Covid-19%20crisis%20-%20ENG.pdf>
- AIIC (2020d) AIIC Interpreter Checklist: Performing Remote Interpreting Assignments from Home in extremi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vailable at <https://aiic2.in1touch.org/document/4845/AIIC-Interpreter-Checklist.pdf>
- AIIC Switzerland (2020) Reference Guide to Remote Simultaneous Interpreting.

- Available at <https://aiic.ch/wp-content/uploads/2020/05/aiic-ch-reference-guide-to-rsi.pdf>
- AIIC Switzerland (2021) AIIC Switzerland Remote Interpreting Seminar II (29 Feb. 2020). Available at <https://aiic.ch/press/remote-interpreting-ws2/>
- AIIC Technical and Health Committee (2019) Technical Study on Transmission of Sound and Image through Cloud-based Systems for Remote Interpreting in Simultaneous Mode(Remote Simultaneous Interpreting-RSI). Available at https://aiic.org/document/4862/Report_technical_study_RSI_Systems_2019.pdf
- AIIC Technical and Health Committee (2020) Evaluation of Simultaneous Interpreting Delivery Platforms for ISO Compliance: Second Round of Tests, October 2020. Available at <https://aiic.org/document/9506/THC%20Test%20RSI%20platforms%202020.pdf>
- Constable, Andrew (2015) Distance Interpreting: A Nuremberg Moment for Our Time? AIIC 2015 Assembly Day 3: Debate on Remote. Available at <https://aiic.ch/wp-content/uploads/2020/05/di-a-nuremberg-moment-for-our-time-andrew-constable-01182015.pdf>
- FIT (2019) FIT Discussion Paper on Remote Interpreting. Available at https://www.a1.fit-ift.org/wp-content/uploads/2019/06/Discussion-paper-on-Remote-Interpreting_EN-FR.pdf
- Ghimire, Swatantra (2012) Speech Intelligibility Measurement on the Basis of I TU-T Recommendation P.863. Master Thesis,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Computer and Electrical Engineering, Halmstad University.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21). Simultaneous Interpreting Delivery Platforms –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 (ISO/DIS Standard No. 24019).
- KATI (2020) 2020 KATI 권고 원격통역 점검사항. Available at [file:///C:/Users/choim/Downloads/2020%20KATI%20%EA%B6%8C%EA%B3%A0%20%EC%9B%90%EA%B2%A9%ED%86%B5%EC%97%AD%20%EC%A0%90%EA%B2%80%EC%82%AC%ED%95%AD%20%20\(3\).pdf](file:///C:/Users/choim/Downloads/2020%20KATI%20%EA%B6%8C%EA%B3%A0%20%EC%9B%90%EA%B2%A9%ED%86%B5%EC%97%AD%20%EC%A0%90%EA%B2%80%EC%82%AC%ED%95%AD%20%20(3).pdf)

- Irabien, Diana Berber (201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Conference Interpreting*. Doctoral Thesis, Dept. of English and German Studies, Universitat Rovira I Virgili.
- Selhi, Taous (2015) Interpretation on the Internet. Available at <https://aiic.org/document/4649/Interpretation%20on%20the%20Internet%20-%20ENG.pdf>
- Sinner, Carsten and Christine Paasch-Kaiser (2020) ‘Introduction’, in Carsten Sinner, Christine Paasch-Kaiser and Johannes Härtel (eds.) *Translation in the Digital Age: Translation 4.0*, Newcastle 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1-9.
- Ziegler, Klaus and Sebastiano Gigliobianco (2018) ‘Present? Remote? Remotely Present! New Technological Approaches to Remote Simultaneous Conference Interpreting’, in Claudio Fantinuoli (ed.) *Interpreting and Technology*, Berlin: Language Science Press, 119-139.

<동영상 자료>

- De Rioja, Lourdes (2020, 6월8일) RSI: A Canadian Experience [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GHiwXdaXHKE>
- Interpretips. (2020, 5월14일). *RSI Webinar 1: An Overview of Remote Simultaneous Interpreting* [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eeljvwNuLmE>
- JTP - Jednota tlumočníků a překladatelů (2020, 11월7일) Remote Simultaneous Interpreting: Current status, challenges, opportunities. (Klaus Ziegler, AII C) [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VFRDVKFNE2E>
- UNSW School of Humanities & Languages (2020, 6월20일) *Remote by Default: Hosted by the School of Humanities & Languages (Linguistic, Interpreting & Translation Program), UNSW Sydney* [Video]. Available at <https://www.2m.com.au/blog/introduction-remote-simultaneous-interpreting/>.

[Abstract]

Interpreting 4.0: Norms and Realities of Remote Interpreting

Choi, Moonsun
(Ewha Womans University)

After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the interpreting profession has undergone a profound change.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ce-to-face, on-site interpreting was no longer possible due to lockdowns and travel bans. As a result, remote interpreting, which used to be the interpreting modality of last resort, has suddenly become the lifeline of multilingual communication. Remote simultaneous interpreting(RSI), in particular, has gained much traction as an increasing number of SI users, especially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companies, opted for virtual meetings. Korea has relatively limited experience in terms of virtual events and remote interpreting, and is striving to meet the rising demand for remote interpreting largely on an ad-hoc basi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latest developments with regards to remote interpreting by examining how its international norms are being formed by AIIC's remote interpreting guidelines and ISO standards. Also, the study provides a survey of remote interpreting realities with a focus on RSI platforms, interpreting hubs and concerns caused by the working conditions involved in remote interpreting.

- ▶ Key Words: distance interpreting, remote interpreting, RSI, hub, ISO 24019
- ▶ 주제어: 원격리통역, 원격통역, RSI, 허브, ISO 24019

최문선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조교수

choimoonsun@ewha.ac.kr

관심분야: 통역교육, 통역전략, 통번역연구방법론, 통번역과 기술

논문투고일: 2021년 2월 7일

심사완료일: 2021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3월 4일